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반대파를 다룰 줄 아는 지도자Ⅳ

(느헤미야 6:1~14)

이종윤 원로목사

Ⅱ. 조롱(비난)하는 자들 : 유언비어 조작

느헤미야가 4번을 거절하자 그들은 5번째 종을 보내어 편지를 전달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한 뜬 소문이 지금 사방에 들리는데 빨리 와서 함께 수습하자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모반자로 오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5~7절).

자기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간신배 같은 이들도이다.

경쟁 상대를 죽이는 방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흑색 선전이 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사단의 수법이다. 그들은 느2:19에서 이미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며 해묵은 수법을 사용한다.

5절의 '봉하지 않은 편지'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뜻이다. 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느헤미야는 비난의 대상이 이미 되었다.

① 유언비어는 그 출처를 선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것이다.

② 유언비어는 어떤 사건을 과장하고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그 공개된 서신 가운데 한 가지 진리는 있다-유대인들이 성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다(6절). 그 밖의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개 거짓을 꾸미는 이들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③ 유언비어는 상처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느헤미야를 궁지로 밀어 넣었다. 그가 오히려 평지로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면 그는 유언비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응하면 성 쌓는 일을 중단하고 그를 죽일 수 있으니 목적달성의 기회라 생각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럴 때 지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우선 그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지도자에게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가 왜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역사를 중단시켜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폭로한 것이다.

선거에서 흑색 선전, 인신 공격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해명을 못해 실패한 이들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해명은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거짓된 소문은 한 마디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즉시 부인해야 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2. 그리고 그는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사실과 다르다 한 것을 사람들이 믿을지 아닐지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구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9절).

이 같은 내적 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은 우리 중

에 거하신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위협할 때 찾아야 한다.

Ⅲ. 협박(공갈)

이것도 간교한 방법이다. 그들은 느헤미야 친구 스마야(10절)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는 것이었다(10-14절).

스마야는 두문불출함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을 산 후 그를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느헤미야는

①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숨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절(그의 경건성) 했고

② 자기 한 생명 부지하자고 도망가는 일은 합당치 않다고 거절(그의 용기) 했다.

1.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13절)

그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여 범죄케 하고 비방케 하려고 했다.

2.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신 적이 없다고 했다(12절)

어떻게 이것을 알았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스마야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느헤미야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뜨림으로가 아니고 지킴으로 얻은 것이다.

결론. 느헤미야의 성공(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서 그가 한 일)

1. 하나님과 가까웠다.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다

엘리아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이미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기로 말씀했다. 그러나 그는 41절에서 갈멜 산꼭대기에 가서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 오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신다.

2.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받은 과업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무섭게 추진해 갔다

3. 자기 존재 가치를 인지했다

느헤미야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4. 바른 분별력(예리한 판단력)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계략, 협박, 유언비어가 있어도 그는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권을 바로 택했다.

5. 위대한 담력(용기)이 있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11절)

진정한 용기는 공포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생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서만 지도력(Leadership)이 나타난다.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사랑부 : 2월 10일(주) 서울교회
영아·유아·유치부 : 2월 16일(토) 서울교회

겨울성경학교·수련회가 오늘 사랑부의 겨울 성경학교와 토요일 영아·유아·유치부의 겨울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교회에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당회와 교역자님들과 부장, 부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은혜로운 가운데 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바란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지도
영아부	2월 16일(토)	서울교회	나는 믿습니다 - 사도신경 학교 (창1:1)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유치부				
사랑부	2월 10일(일)	서울교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 1:12)	심우진 목사

사랑부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강인 집사 (사랑부 부장)

사랑부가 오늘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지난 한 해 교사들의 정성어린 헌신으로 교회의 분쟁 가운데도 사랑부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랑부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르침을 여과 없이 흡수하는 사랑부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사랑부 학생들은 또 한 번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발달장애인에 남다른 비전을 가지셨던 이종훈 원로목사님은 서울교

회 설립 직후인 1992년 장애인에 위한 교회학교인 사랑부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몽학교, 나사렛재활원 등의 많은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사랑부를 거쳐갔고, 사랑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약한 자에게 유달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처럼 유달리 사랑부를 기억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부는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랑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선혜영 김도연·이선주 김민아 이봉규 이용자 이선희 윤요섭·안재희 한길동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다락방 리더교육 개강 2월 13일(수)

혹한기를 맞아 잠시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리더교육을 오는 2월 13일 수요일에 개강한다.

각 교구의 교구장, 교구간사, 다락방장들은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핸드벨 대원 모집

2부 핸드벨과이어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연령, 성별 무관)

- 강지은 대원: 010-3272-1420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겨울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유치부

나는 믿습니다!



김명연 집사 (유치부 부장)

제가 유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9년 전 어느 주일에 지난주처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매가 시작할 지 한참 지난 시간에 한 어머니가 유아부 아이를 데리고 예배실로 달려왔습니다. 급히 아이를 예배실로 들여보내고

“어머님 많이 늦으셨네요” 하고 여쭙더니 “실은 예매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교회 주차장이 만차여서 주차할 곳을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교회에 꼭 가야된다고 울고 떼를 써서 차를 집에 주차해놓고 다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느라 많이 늦었어요.”

아이들에게 도리어 신앙에 대해 도전을 받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봉사하면서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순수한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의 믿음

에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을 가르치고자 “나는 믿습니다”-사도신경 학교 라는 주제로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여러 가지 성경 학습과 만들기 활동, 주제 놀이터, 찬양과 율동 등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서 아이들의 바른 신앙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전국 잔치인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고백이 평생의 신앙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겨울수련회를 은혜중에 마치고

삶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수련회

김정현 (고등부 회장)

1월 25일 저희 중·고등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수련회를 위해 아가페타운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임원을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고2가 되어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모두 수련회 진행 준비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어 이번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고 각자 조원을 알려줬을 때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열려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수련회가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다행히 게임과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면서 친구들과거리 좀 더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집회가 끝났을 때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거하심을 느꼈습니다. 수련회 이후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2번씩 있는 교회 수련회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수련회 한 번 한 번이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평소 부족했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수련회를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 혹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매년 두 번씩 반복되는 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수련회가 세상 수련회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신 최승원 전도사님, 많은 도움을 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 앞에서 열정을 다하여 찬양을 드린 엔젤스 친구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련회를 인도하신 이명준 선생님과 세선분들, 수련회 준비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한 우리 임원 친구들, 무엇보다 겨울 수련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모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교보고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부는 성령의 바람



살레멧스즈 베?(안녕하세요?)

2019년 올 한해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큰 감사드리며 이곳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그동안 기도해 왔던 '좋은 아버지'(좋아)모임을 작년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좋은 아버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들이' 되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저녁 교회에 모여 성경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고



일년통독 성경읽기표가 웨민홀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1독/2독 마치시는대로 교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표는 매주일 순례자에 기재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교회와 다른 한 성도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너무나 뜨겁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일한 성령께서 아버지들의 모임에도 임하셔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길 기도합니다.

2. 작년 10월말에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싸샤'라는 남자 성도와 '굴잔'이라는 여자 성도가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는 결혼예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된 '싸샤' 성도는 '굴잔' 성도가 직장에서 교회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기를 원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안타까워했던 '굴잔' 성도는 결국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봉사하고, 주일예배와 수요일기도회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3. 1년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서 최대 3년을 준다고 해서 기도하며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고,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결과는 전혀 예상밖으로 겨우 6개월 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6개월 뒤에 또 연장 신청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나오려니 생각했던 저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짧은 6개월이지만 6년처럼 시간을 잘 선용하고 다음번에는 더 길게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1) 이곳 으뭇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계속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 2) 2019년 1월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있을 사역자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1일	월	레 14:33-16:34		수 15-19	
2월12일	화	레 17-19		수 20-24, 샛 1-3	
2월13일	수	레 20-22		샛 4-8	
2월14일	목	레 23-25		샛 9-14	
2월15일	금	레 26-27		샛 15-21	
2월16일	토	민 1-2		룻 1-4, 삼상 1-3	
2월17일	주일	민 3-4		삼상 4-11	

• 리더 수련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깨닫고 한 해를 잘 계획하도록.

3) 주일예배와 수요일기도회가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모임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4) 저희 부부가 추운 겨울 은혜 중에 사역 잘 감당하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5) 대입준비 중인 딸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합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도 건강과 지혜 주셔서 앞날을 잘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양** 이** 드림

* 선교사님과 교인들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하며 이름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통독자

1독 : 4교구 유기찬 집사

동정

- 금주의 식사 :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가정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마파두부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월 10일(주) 사랑부, 2월 16일(토) 영아, 유아,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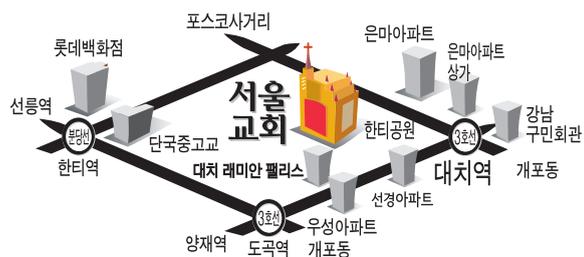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